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SNS 이용자 발언 / 고아침
2025-04-16

안녕하세요, SNS 이용자 겸 AI 윤리 레터 운영진 고아침입니다.

저는 2009년 4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수 이후 트위터를 떠나겠노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매년 그러지 못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십육년 간 이 서비스는 제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매체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트위터에서 셀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하며 저는 인디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흥대 두리반 투쟁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생 미술공간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을 접하고 웹툰, 영화, 게임에 관해 시시콜콜한 소리를 떠들었습니다.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고, 가족이 저장해둔 동물 영상을 함께 보며 귀여워 하고, 귀여운 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읽을 거다, 혹시라도 필요할지 모른다, 스스로를 기만하며 수많은 기사와 논문에 마음을 찍어두었습니다. 후다닥 쓴 트윗이 알티를 타서 짜릿함을 느끼기도, 공들인 트윗에 반응이 없어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폭로문과 그에 못지 않게 많은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응원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한낱 별(마음) 하나 남기고는 클릭 한 번의 효능감과 그게 다인지 묻는 회의감 사이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구독하던 계정이 수습할 수 없는 일에 연루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리트윗했다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성급히 취소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여객선을 타고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전원구조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에 안심하고, 사실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이내 절망을, 나아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고, 또 다른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랍의봄과 #월가점령을 바라보며 웹2.0의 민주적 힘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기대는 다소 선불렀지만 남태령에서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금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공론화와 #미투, #블랙라이브스매터, 그밖의 크고 작은 해시태그 운동을 목도하며, 나와 같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만나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 플랫폼은 내가 웃고, 울고, 화내고, 사랑한 사적이며 공적인 삶의 흔적입니다. 그 어떤 물리적 기반 못지 않게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살아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수많은 사람의 이같은 경험을 플랫폼 기업이 사유화하는 작동방식에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저는 제 일상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AI 기술에 관심이 쏠리자 메타와 X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이용자 데이터를 AI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보통 은근슬쩍 이루어지고, 긴 약관에서 AI 훈련 데이터 제공 관련 항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약관을 개정했다가 이용자들의 반발이 일자 그제야 한발 물러선 서비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용자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는 제 삶의 기록이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내 삶과 경험에 대한 권한을 누가 얼마나 가지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균형은 갈 수록 기업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용자에게 데이터 수집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용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옵트아웃 권한을 행사하기란 모래 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비슷하고, 그나마도 권한이 주어지면 다행인 경우입니다. 기업이 저의 데이터, 제 삶을 활용하는 방식은 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이용자인 우리가 데이터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